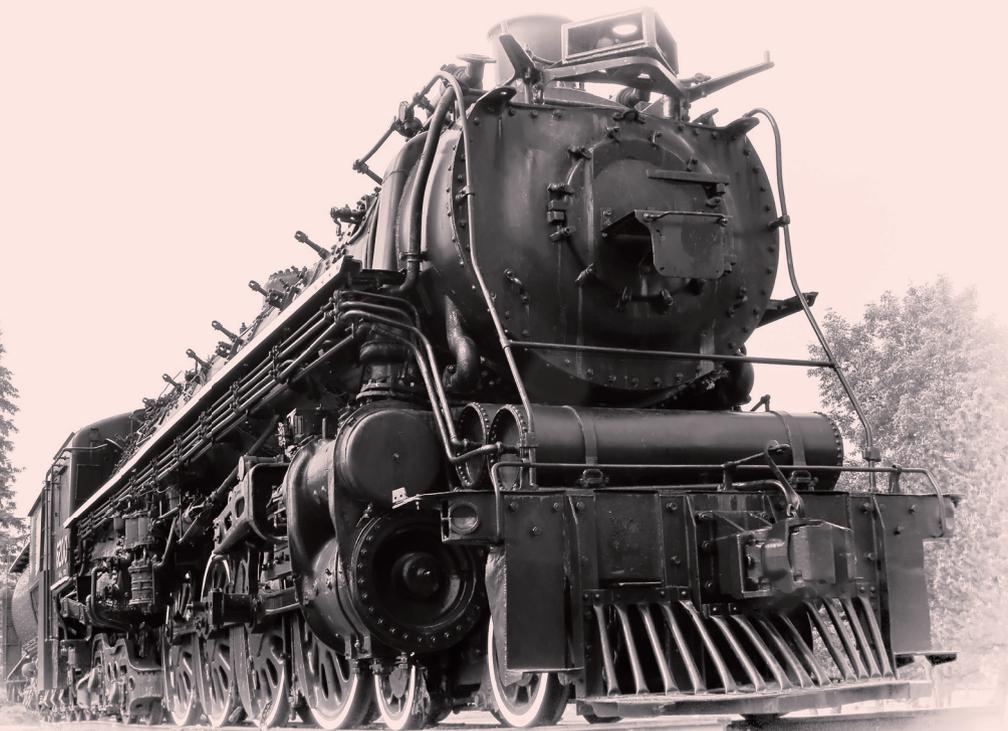


기차, 시간을 태우고 달리다

글 조병례 **참고도서**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다산북스, 2018)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기차를 타는 것이었다. 비행이 흔해진 이후로도 기차는 최고의 속력에 도전하면서 제몫을 하고 있다. 긴 시간동안 친숙한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된 기차는 지금도 시간을 달리는 중이다.

획기적인 속도

영국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 철도 기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기차의 유래는 16세기 광산용 수레였는데, 증기 기관차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4년이었다.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증기기관차는 1830년경 사상 최초로 영국 리버풀과 맨체스터 구간 약 48km 거리를 오가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의 출현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기차가 운영을 시작할 무렵에도 존재했다. 기차 때문에 사람들의 폐가 망가지거나 암소들이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마차로 오가는 것에 비해 여행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는 장점은 그런 염려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맨체스터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기차로 리버풀로 이동해 업무를 본 뒤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예측에 이어,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약 48km의 두 구간 사이를 기차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시간 25분에 불과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이 시대에 기차는 영국 전역을 거쳐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에도 보급됐다.

철도 개통에 따라 기차시간표가 등장했다. 리버풀 앤 맨체스터 레일웨이 사는 열차 출발 시간만 표시된 시간표를 만들고 일등석 객차와 이등석 객차 요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여러 철도회사가 스케줄 조정을 합의하지 못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하루에 여러 철도 노선을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먼 지역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닥쳤다. 여러 노선의 시간표는 1839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 각 지역의 표준시간이 제각각이던 영국에서 기차 노선과 시간을 연관지어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승객들은 도착지에 따라 매번 시계를 조정해야 했다. '시간이 정확히 맞는 시계'에 대한 필요가 점차 커졌고 기차역 시계가 맞지 않아 시간차가 생기면 승객들은 짜증을 내기 마련이었다. 심지어 기관사들의 시계 속 시간이 서로 달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표준시간의 도입

1년 후 영국 사상 최초로 전역에 표준시가 도입되고 철도회사들은 기차 시간표를 새로 만들 수 있었다. 1840년 11월에는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 사가 '승객이 어느 역에서 내리거나 타더라도 자사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시간을 모두 똑같이 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두가 표준시에 찬성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학자 겸 작가인 알프레드 하벨랜드는 브라이튼에서 런던 간 철도노선을 이용해 자주 여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빨리 늙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1880년 영국 의회에서 '표준시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니치 표준시가 영국의 표준시간으로 채택됐다. 반면 미국인들에

계는 지역마다 시간이 다른 것이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1853년 이후에 들어서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다. 철도 엔지니어인 윌리엄 F. 앨런은 미국 철도 표준시험의회 사무차관을 맡아 1883년 한 회의에서 표준시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모여 기차시간표를 보기 편하게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고, 로마 숫자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열차들이 국경 통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더욱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기차의 성능은 점차 향상돼 미국에서 만들어진 증기 기관차 999호는 처음으로 시속 160km의 속도로 달렸다. 디젤 전기 기관차가 등장하고 연료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프랑스의 고속열차 TGV(떼제베), 우리나라의 KTX 등이 탄생하기도 했다.

2017년 일본의 고속열차인 '리니어 슈오 신칸센'이 시험 주행에서 최고시속 603km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도쿄-오사카 구간을 54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동 수단인 기차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